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

세 개 교단 연합예배 드려, 아펜젤러·언더우드 선교사 후손 참석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가 4월 3일(목), 새문안교회에서 열렸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예배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합동총회 공동 주최로 교단 관계자들과 아펜젤러·언더우드 선교사 후손들이 참석해 뜻깊은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기념 예배는 1부 예배, 2부 감사와 축하, 3부 학술 세미나로 진행되었다.

세 개 교단이 연합해 드린 개회예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튼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은 성육신의 신앙이었다. 아펜젤러·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복음을 향한 열망으로 미지의 조선 땅을 밟았다.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해 자유, 평등, 박애 정신으로 교육과 의료, 여성 인권 등에 앞장서며 사회를 변화시켰다. 절망과 소외된 자들이 사는 곳에 교회를 세워 위로와 소망을 전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았고, 하나 됨의 신앙으로 합력하였다.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연합 정신이다.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2부 감사와 축하 시간에는 각 교단 총회장들의 기념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손 피터 언더우드는 유창한 한국어로 "기독교인이라면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 5대손 로버트 셰필드는 "헨리 아펜젤러 할아버지로 인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3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하희정 감신대 교수,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 안인섭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선교와 교육, 사회봉사를 주제로 한국선교 140년간의 성과와 과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3개 교단은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신앙의 기본 다지기 운동 및 도덕성 회복 운동,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적 역할 적극 동참,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적극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4월 6일(주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감리회 선교 140주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기념대회 준비위원장 박동찬 목사의 대회사에 이어 말씀을 전한 대회장 김정석 감독회장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도 복음의 열매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품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배 후 '미래를 향한 시작, 비전 선포식'에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보낼 구급차 전달식과 아프리카 모잠비크, 말라위 선교사들에게 어린이 급식비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번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14개 사업을 진행한다. 기념대회에 참석한 모두는 선교 150주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며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를 마쳤다.

이상희 기자

2 광림의 강단 한 알의 밀알 신앙
3 광림 스토리 산불 재난 구호물품 전달
4 하나님을 만나다 전교인 바자회, '선교 한마당'
5 다음세대 청장년부, 저자와 함께하는 FIWA 특강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제21회 전교인 체육대회

한 알의 밀알 신앙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요, 생활의 철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따라 사셨고, 이 말씀 따라 죽으셨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있어져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리교 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한국 감리교회 전체가 선교 140주년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념주일입니다. 14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파란 눈의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의 제물포 항에 도착한 아펜젤러 부부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합니다. 이들이 조선 땅에 전한 복음은 절망하고 좌절하였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절망과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하신 오늘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의 역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20~26

20.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첫째, 죽어짐으로 생명이 얻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작은 밀알,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이지만 내부에 준비된 자체만의 생명으로는 생명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교육자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의사로서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였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죽으면 내일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본문 24절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은 생명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으면 내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선택적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죽음으로 내일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선택적 고난이요, 더 나아가 선택적 죽음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택이 오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셨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로지 복음의 능력 하나만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내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분노와 시기를 매일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기쁨과 감사, 감격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덧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본문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지만 이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쉬켄'으로 이는 '자연적 생명'을 말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생명'은 '영생하도록'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으로 자연적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25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한다면, 자연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연적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뒤어어 조선 땅에 온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홀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1894년 평양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후, 평양에는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기에 의사인 윌리엄은 평양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치료하다 전염병에 감염됩니다. 그리고 1894년 11월 34살의 나이로 전염병에 의해 죽고 맙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윌리엄은 아내인 로제타 홀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그 희생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겠어요.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한 사람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 순교자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와 더불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새로운 생명,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된 생명의 삶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피어난 사랑의 손길

영남 산불 피해 현장에 전달된 광림 사랑의 구호키트

빛과소금교회 화재 현장

광림교회는 지난 4월 2일(수) 의성, 안동, 영덕을 비롯한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와 이재민들을 위해 사랑의 구호키트 170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3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2022년 울진-삼척 산불과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는 최근 많은 피해가 발생한 미국 LA 산불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4월 2일, 영덕중앙교회를 방문해 광림교회에서 마련한 170개의 사랑의 구호키트를 전달했다. 영덕중앙교회의 조황재 목사는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필품조차 없이 빈손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광림교회의 손길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빛과소금교회(경북 영덕)를 방문하여 간절한 기도와 위로의 말씀을 건넸다. 빛과소금교회의 최병진 목사는 "2012년 처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였는데, 교회가 항구 근처에 있어 수해 피해가 반복되어 세 번의 이전 끝에, 지난 2023년 성도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현재 위치에 예배당과 사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교회가 전소되어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손길과 감독회장님의 기도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광림교회 사랑의 구호키트는 지난 코로나 시절 선한나눔운동으로 시작되어 코로나 기간 중 세 차례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달하였으며,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특히 2024년도부터는 강남구 푸드지원센터와 함께 매월 선한나눔운동을 실시하고 있었기에, 이번 영남 산불 구호키트 역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었다.

특별히 지난 4월 6일 주일은 6,700여 개의 감리교회들이 일제히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며, 영남 지역 산불 피해의 회복을 위한 재난헌금을 드렸다.

전문가들은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복원되는데 최소 30년 이상, 토양의 복원에는 100년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한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과 소실된 교회의 재건을 위한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사순절, 성금요일 성찬예배

4월 18일(금), 오후 8시 본당 대예배실과 지교회에서

광림교회는 4월 18일 저녁 8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성찬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한다. 올해 성금요일은 오는 4월 18일로 부활절 이틀 전이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다.

성금요일(Good Friday)은 부활절 직전 금요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십자가와 죽음으로 어둡고 고통스러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날이다.
고난주간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고통에 동참한다. 하루 한 끼 금식, 미디어 절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기, 기도 생활 등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보내고 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성금요일 성찬예배가 단순한 절기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적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난주간의 슬픔과 비탄 후 오는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과 환희를 주는 복음의 완성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경건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정순 기자

포토 뉴스

네팔 수먼 고우덤 감독 방문
4월 4일(금), 네팔 수먼 고우덤 감독이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의료선교회 구호용품 전달
의료선교회는 4월 2일 산불 지역 이재민에게 의료 세트 100개를 전달했다.

2025 사랑부 사순절 기념 전시
사랑부는 4월 13일까지 웨슬리관 1층 갤러리에서 '사순절 모자이크 아트: 하나의 묵상, 백개의 손길'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감독회장 동정

4/2 의성·영덕 산불 현장 방문
4/3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 & 학술세미나
4/4 네팔 수먼 고우덤 감독 방문
4/6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대회
4/9 해병대 2사단 방문
4/10 CTS 좌담회 '한국교회를 論하다'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기쁨과 위로가 있는 은혜로운 성경 필사

동탄광림교회 고금희 권사

성경 필사는 단순히 성경 구절을 옮겨 적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하는 신앙적 실천이다.
광림교회는 성도들이 손으로 쓰는 성경 필사와 온라인 성경 쓰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하여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마다 많은 광림의 성도가 성경 필사에 참여해 영적 성숙을 이루고 있다.
동탄광림교회의 고금희 권사는 10년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권의 성경 필사를 마쳤다. 고금희 권사가 성경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해 나눠 보았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잖아요. 제가 참으로 마음이 곤고할 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본당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필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노트를 사서 적어보기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필사 노트를 구매해 성경을 쓰게 된 게 2015년이었어요.
고 김선도 감독님이 늘 말씀하셨던 광림교회 5대 전통 중 일치된 순종이 제 마음을 울렸고 제 신앙의 기초가 되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늘 되새기며 필사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눈다면?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병간호하면서 필사했어요. 하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보다 마음에 새기며 글로 적다 보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필사했던 말씀이 저한테 깊숙이 들어옴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깨칠 수 있는 지혜도 생겨서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롭게 여겨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받았어요. 성경 말씀뿐 아니라 목사님 권면의 말씀, 트리니티, 속회 등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기쁨이 넘쳐났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입니다.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 필사를 해보시고 필사 전후의 비교되는 삶을 누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손으로 쓰는 성경 필사는 빛의 숲 서점에서 판매되는 성경 필사용 규격 노트를 사용해 개인적으로 필사한 후 목회선교지원실에 제출하면 무료로 제본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성경 필사는 광림교회 홈페이지의 교회 생활 내 성경 쓰기를 통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성경 필사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박희윤 기자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축 위한 전교인 바자회 '선교 한마당'

새 이름에 담긴 선교의 뜻, 전교인이 함께 이뤄간다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위원장 이화열 권사)가 주관하는 전교인 바자회가 '선교 한마당'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욱 깊은 의미를 담아 열린다.
이번 바자회는 지진으로 무너진 안디옥개신교회 성전 재건을 목표로,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선교와 전도의 장이 마련되었다.
김정석 감독회장께서 고심하여 지어주신 '선교 한마당'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판매 행사를 넘어,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여선교회를 비롯해 모든 위원회, 지교회, 선교구가 함께하는 통합형 행사로 준비된다. 특히 과거에는 약 100~150개의 개체가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454개 전 개체 선교회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3·4·7선교구 등은 단위 부스를 통합 운영하고, 교회 전 위원회가 힘을 모아 참여 규모를 크게 확장한다.

행사 수익금은 전액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축 헌금으로 사용된다. 안디옥개신교회는 2000년 광림교회가 튀르키에 하타이주 안타키아(성경 속 안디옥 지역)에 세운 해외 선교의 상징적 교회다. 옛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던 안디옥개신교회는 2023년 2월 대지진으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에 광림교회는 전교인의 뜻을 모아 재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화열 권사는 "선교 한마당은 단순한 바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선교 축제입니다. 단순히 기금 마련을 넘어, 전도의 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매년 바자회를 앞두고 관계성 전도와 노방전도를 통해 새신자 등록을 이끌어내며, 지난해에는 12명을 교회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을 초청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 중이며, 새가족위원회도 별도 부스를 마련해 전도와 등록 안내를 도울 예정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물질과 시간, 그리고 기도의 헌신이 모여 귀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여선교회와 역사적·영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는 사역지이고, 새 성전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이번 바자회 준비 과정은 기도와 헌신으로 가득하다. 지난 3월 31일에는 바자회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 매일 밤 9시에는 개체선교회장들이 함께하는 합심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 교역자들의 기도도 큰 힘이 되고 있다. 1월부터 시작된 씨앗헌금과 특별헌금 운동에도 여선교회가 솔선수범해 참여하고 있다.

'선교 한마당'은 4월 22일(화)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트리니티 성경공부 전후에 밀레니엄 광장에서 열린다.
4월 13일, 20일(주일) 본당 지하 1층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여선마켓'도 운영해 애장품과 먹거리 등을 사전 판매하고 있다.

한혜선 기자

청년부

2025 봄학기 LTS 개강,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시간

3월 22일부터 8주간 신앙 성장 · 은사 개발 · 삶의 지혜를 위한 다양한 강의 열려

광림교회 LFC 청년선교국은 3월 22일(토), ONE THING WORSHIP의 찬양을 시작으로 봄학기 LTS(LFC Training School) 여정을 시작했다.
LTS는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성하게 가꾸어 가도록 돕는 배움의 장이다.

이번 봄학기는 오는 5월 10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8주간 진행되며, 찬양 후 '신앙 성장', '은사 개발', '삶의 지혜'라는 세 가지 목적 아래 총 11개의 강의가 운영된다.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하는 강의로는, 다니엘서를 통해 시대 속 신앙인의 자세를 돌아보는 '다니엘서', 예수님의 삶과 사랑을 되새기는 '요한복음'이 개설되었다.

생활 속 실천과 성장을 위한 강의도 다채롭다.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선택 훈련, 자기 이해와 정서 회복을 돕는 감수성 훈련,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연애와 결혼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 강의가 있다.

의학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몸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알쓸신의(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의학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는 보금자리와 복음, 공동체를 기타로 섬기는 기회를 마련하는 LTS 기타 강의도 개설되었다.

일상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풀어내는 사진의 기초부터 작품까지, 농구를 통해 쉼과 기쁨을 누리는 코트 위에서 가장 행복한 8주 등 각자의 관심과 은사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었다.
또한, 아크릴과 조형으로 은혜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색채로 물든 은혜와 같은 창의적이고 은혜로운 강의도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알쓸신의 강의를 수강 중인 방승언 속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몸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용어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통증의 위치에 따라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병을 마주하고 회복을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응급 처치와 약 복용 방법을 배워 앞으로의 선교에서도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LTS 봄학기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청년들의 걸음이 활기차다. 따뜻한 봄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어나는 광림의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황시언 전도사(청년부)

청장년부

김윤희 저자와 함께하는 FWIA특강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는 지난 3월 30일 FWIA의 저자인 김윤희 박사를 초청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청장년부에서는 젊은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FWIA를 꾸준히 나누어왔다.
FWIA(Faith & Work Institute Asia)는 청년들이 일터와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유익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장년부는 양육을 처음 시작한 후부터 현재까지 일, 재정, 성공, 관계, 윤리 등의 주제를 두루 다루며 3040세대의 신앙적 고민을 나누어왔다. 특별히 초청한 김윤희 박사는 청장년부에서 FWIA를 시작할 때부터 긴밀한 연을 맺어왔고, 얼마 전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직을 마치고 청장년부에 다시 방문해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이번 특강은 지체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비롯해 미리 준비한 대담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 성공, 윤리적 딜레마, 동성애, 자존감, 솔로와 결혼, 정체성, 자녀에게 크리스천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들 등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김윤희 박사 역시 두 아이의 엄마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맞닥뜨렸던 질문들에 대해 시원하고 명쾌한 해법들을 내놓았다.

김윤희 박사는 먼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성취 압박과 경쟁, 정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나 자신을 알면 re-risk와 de-risk가 가능해진다. 다음은 이웃에 대해 정죄와 분열보다 자유와 배려를 하게 된다.

첫째 나를 존중하고, 둘째 남을 먼저 존중하게 되며, 셋째 남을 축복할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블레싱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이 된다면, 내가 일하는 곳 어디나 나로 인해 축복받는 공간이 되고, 그로 인해 안 믿는 사람들도 무장해제된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작은 실천이자 나의 정체성이다. 내가 필요한 곳에 가고, 좋은 것을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고, 안전지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며 다양한 실례들을 들어 자리한 청장년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특강에 참석한 서희원 성도는 "박사님의 특강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앞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유가득 성도는 "버킷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강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었고 특히, 성경 말씀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현실감각을 더하여 답변해 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장년 1부 최호산나 부장은 "FWIA를 빨리 만났더라면 신앙생활을 더 기쁘고 자유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청장년 지체들에게 좋은 강의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기쁘다"라며 청장년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고민재 전도사

목회현장

내일의 열매를 위해 오늘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눅 5:5)

지난해 2024년 6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가 1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1사단 12여단 1대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대는 간부와 병사들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20~30여 명이 출석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에 비해 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보통 대대에 있는 군부대 교회의 평균 예배 참석 인원이 5~10% 정도라고 합니다.

군 선교 현장은 군인권 강화, 스마트폰 사용, 동기 생활관 사용, 일과 시간 외 휴식 보장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부대 내에서 전도하는 일이 까다롭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독간부들이나 기독장병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병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전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에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자 위문예배를 거의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 교육을 외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서 장병들이 부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악기 교육은 드럼, 통기타, 베이스기타, 건반, 섹소폰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초기 신청자가 60명이 넘을 정도로 관심이 컸고 교육 여건상 24명으로 줄여서 진행했습니다. 악기 교육을 하는 동안 믿지 않는 병사들, 그리고 교회를 쉬고 있던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가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악기 교육을 계기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장병이 지금은 예배 때 찬양팀 반주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군선교의 현장을 느끼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떠올립니다. 밤이 새도록 자기가 갖고 있던 기술을 총동원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던 베드로, 그가 내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군선교 현장도 비록 오늘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준비할 때 분명히 주님의 역사로 인해 군선교의 열매,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장병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할 계획이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문예배, 악기 교육, 그리고 푸드트럭을 통한 전도 사역, 생활관 방문 및 심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장병들을 만나고 전도할 기회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군선교 현장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태응 목사(1사단)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

믿음 안에서 걸어온 길,
헤어짐 너머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2025년 감람동산 합동추모예배가 4월의 잔잔한 봄비 속에 강촌광림교회에서 은혜롭게 드려졌다.

감람동산에 잠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추모하며 드린 이번 예배는, 비가 내리는 날씨조차도 오히려 경건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더하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배는 조성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경조위원회 위원장인 배경호 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이 땅의 이별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는 신앙고백을 담았다.

이날 말씀을 전한 조성한 목사는 '기억하고 전하며 나타내라'(수 4:20~24)는 제목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강조했다. "삶 속의 만남과 이별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믿음으로 걸어간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전하며 유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소망과 위안을 전했다.

말씀 후에는 여선교회 솔리스트가 '오 신실하신 주'를 부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했다. 곡조 깊은 찬양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기며,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예배 후반에는 모든 유족과 성도에게 '코이노니아'의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인사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원했다.

이번 합동추모예배는 경조위원회의 정성과 헌신 속에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예배에 앞서 감람동산 전체를 돌보며 묘역을 정리하고, 잡초를 뽑고, 예배 공간을 정돈하는 섬김을 이어갔다.

또한 예배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 예배 준비를 돕고, 커피 봉사와 차량 안내, 전체 진행까지 맡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차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섬겼다.

감람동산에서 드려진 이번 추모예배는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사랑하는 이를 추모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품는 시간이었다.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다.

한혜선 기자

동탄광림교회

청장년부 첫 출발을 감사

저는 어린 시절부터 광림교회 본당에서 교회학교 성가대, 찬양단, 임원단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광림교회에서 경험한 다양하고 풍성한 말씀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주거지가 천안으로 옮겨져 제일 가까운 광림교회 지교회를 찾던 중 30분 거리에 동탄 성전을 알게 되었고 온 가족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육아를 하며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일상의 복잡한 마음들을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워 주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정생활과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기도하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을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바쁜 삶 속에 주일예배만 드리다 보니 무언가 과거에 가졌던 뜨거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청장년 모임이 시작된다고 알려주셨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셔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이라 휴식을 갖고자 했던 남편을 설득하여 참여하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 "우리 수련회 온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준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첫 모임의 어색함도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고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배 후 미니올림픽 프로그램으로 다른 가정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시고, 각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게임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으로 돌보지 못했던 영적 생활이 회복되고 충전되어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청장년부를 위한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각각 맡겨 주셨는데, 저희 가정은 총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남편이 너무 기쁨으로 순종해 주는 모습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탄 성전의 청장년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고민, 우리가 받은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며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귀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동탄 성전, 청장년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현정 성도(75교구 청장년부)

1885 2025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선교의 역사 2

의술로 연 선교의 길

미국에서 가우처(John F. Goucher) 목사와 보빙사절단의 만남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조선 선교를 위한 헌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당시 일본에 있던 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obert S. Maclay)에게 조선 방문을 독려했습니다. 매클레이는 1884년 고종 황제를 만나 병원과 학교에 대한 사업을 윤허 받았습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 선교를 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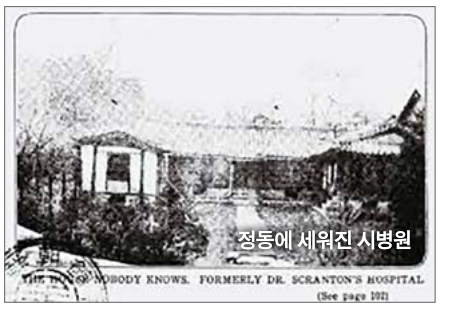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

고종의 선교 윤허로 1884년 9월 20일, 중국에 있던 알렌(Horace N. Allen)이 의사의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었고, 갑신정변에서 칼을 맞은 민영익을 치료하며 왕실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도 병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렌의 의술활동으로 탄력을 받아 1885년 4월에 홍영식의 집(현 헌법재판소 구내)에 제중원(광혜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제중원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헤론(John W. Heron), 하디(Robert A. Hardie), 해리스(Lilian N. Harris) 등의 의료선교사가 활동하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대문 밖에 세워진 세브란스병원

알렌은 1887년 주미 한국공사관의 임시공사로 부임을 받아 병원을 떠났고, 병원은 남대문 안 구리개로 이전하여 혜론 선교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비슨(Oliver R. Avison) 선교사는 미국의 실업가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 1904년 남대문 밖 복숭아골(도동)에 현대식 병원을 지으면서 병원 이름이 세브란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동에 세워진 시병원

제중원에서 일하던 스크랜턴 선교사는 정동에 독자적으로 진료소를 시작했고 1886년 6월 15일 '시병원'(施病院)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동은 덕수궁과 외국 공관이 있었기에 서민들이 드나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턴은 가난한 서민들을 찾아가 남대문과 동대문 그리고 애오개(아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병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의료 사역은 평양, 선천, 원주,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일반 서민들을 찾아가 의료인식 개선, 위생교육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했고 곳곳에 병원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은 오전에는 치료를 저녁에는 예배를 함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인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료선교사들은 스스로를 '숲속에 길을 내는 벌목꾼'으로 부르며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선교사들 외에도 수많은 의료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리거나 과로로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제타 홀(Rosetta Hall)이나 셔우드 홀(Sherwood Hall)처럼 대를 이어 의료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의료선교로 복음의 길을 낸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병원과 그들이 길러낸 의료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을 치료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전교인 체육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한다

남선교회총연합회 - 박기연 장로

4월 26일(토) 한양대 체육관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린다. 남선교회가 이를 주관하는데 2016년부터 10년째 총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박기연 장로를 만났다.

남선교회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셨나요?
대학부 회장, 갈릴리성가대, 지금은 없지만 베데스다선교찬양단, 30년간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사, 총무, 부장, 학감으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교구에서 속장, 선교회장, 7선 교구 연합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광림교회 역사에 가족들의 헌신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야사 시절 초창기 광림교회의 1세대로 시작해서 외조모 최신애 장로부터 박지한 장로, 박남실 장로, 전병희 장로, 박종기 장로 그리고 아버지 박리봉 장로에 이어 부족한 제가 7번째로 광림교회 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남선교회 총회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이 있다면?
임명받자마자 가장 주력했던 일은 3040청장년 세대인 스데반선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먼저 모이기에 힘쓰는 스데반선교회가 되기 위해 신실한 믿음과 사명감이 있는 리더들을 발굴, 육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의 관계성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스데반 페스티벌과 선교구별 스데반 연합선교회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결과, 지금은 스데반은 물론 디모데선교회까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바울, 웨슬레 선배들과 함께 광림교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견인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 그 취지를 설명한다면?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는 1979년 5월 30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21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4월 26일 한양대 올림픽 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1회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의 슬로건은 '뛴다! 달린다! 하나된다!' 입니다. 교육국, 청년부과 청장년부, 사랑부, 외국인제자센터, 남교회를 비롯한 지교회까지 남녀노소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기쁘고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는 체육대회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특별히 총력전도주일을 앞두고 전도와 선교를 다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세우는 남선교회의 비전은?
광림교회의 모든 남성은 선교구, 교구, 지역에서 각 연령별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남선교회총연합회는 이들 개체 선교회를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리더인 개체 선교회장들이 소속된 선교회원들을 믿음으로 돌보고 섬길 때 개체 선교회 및 교구, 선교구가 부흥하고, 이어 남선교회가 부흥하고 결국 교회도 부흥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또한 개체 선교회가 안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어 선교 역량을 키우면, 밖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나누며 세우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남선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득섭 기자

제 21회
광림교회
전교인 체육대회

뛴다! 달린다! 하나된다!

일 시 2025. 4. 26(토) 오전 9시

장 소 한양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 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